

이 시험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9평 독서/개념

독해법

독해법+

문풀비급

1. 독해법

-단 2가지의 원리를 통해 모든 작품을 일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다

-**BONE 독해:** 서술어에 집중해 문단 별 주제를 파악

-**KEYWORD**동그라미// 서술어(결론) 밑줄// 서술어(결론) 연결

-KEYWORD는 주로 각 문단의 첫 주어, 서술어는 각 문장의 결론 부분(이후 심화 정리!)

-서술어를 연결함으로써 'KEYWORD+기능/ 구조/ 미래/ 과거/ 특성/ 역사' 같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주제 문장을 넘어서 문단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함

-**POINT 독해:** 4가지 서술방식에 집중해서 글의 세부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함

-정의(란.이란.~인 A.~로 정의된다. 은, 는)// 요즘은 상관관계가 트렌드!

-비교 대조(이와 달리, 그러나, 하지만, 달리, 비해, 반면)// 꼭 X&Y 치기!

-과정 원리(과학 기술지문에서)// 순서 바꾸기는 번하다 번해!

-대응 관계(A를 본 판 B)// 유추로 A 개념을 B에 넣자!

<예전 BONE 개념/ 복잡/단순화 필요>

-문장간 관계를 통한 파악

:전제 결론, 진술 예시, 비교 대조, 과정 원리에서 밑줄친 게 주제

-연결사를 활용한 파악

:대조의 연결사(그러나) 전제와 결론의 연결사(그렇다면) 인과의 연결사(따라서)는 뒤가 중요 예시의 연결사(예를 들어)는 앞이 중요

-이외에도 통념과 반박 등 다양한 독해방법을 통해 주제를 찾고자 노력해옴

이 시험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9평 독서/개념

<새로운 BONE 독해법>

예전 BONE개념은 좋기는 하지만 글을 다 읽으면 주제만 기억남& 복잡& 적용이 어려움

① KEYWORD 와 서술어면 충분하다!

-모든 사유는 KEYWORD+ A →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이라면 주어+충위→서술어

-문단이라면 제재+충위→주제

-글 전체라면 서론+충위→결론

-정말 1도 모르는 독해 초보는 키워드만 파악 → 어느 정도 글을 읽게 되면 KEYWORD+A를 찾기 시작함

-이전에는 연결사와 문장간의 관계를 가지고 주제가 되는 문장을 파악하고 그 문장을 KEYWORD+ A → 결론의 구조로 정리하고자 함(이전 독해)

-그러나 이는 주제 정보 이외에는 정보가 잘 남지도 않고 어려움!

-정보도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KEYWORD+A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고민

-미리 주제를 정하지 말고 주제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결론과 서술어를 활용

-문단의 KEYWORD에 동그라미. 문장의 서술어에 밑줄. 문단이 끝나고 서술어끼리 연결한다면 문단의 주제가 보임

EX)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의 '표현주의'(키워드)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자,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 받는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독일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표현주의자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초라한 인간상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불안과 공포,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것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주로 키워드는 문단의 첫 주어, 서술어의 문장의 결론! 중요한 건 문단 끝나고 연결하는 것!

'문장의 결론에 밑줄치고 연결만하면 정보도 남고 주제도 정리

'표현주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면 됨

이 시험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9평 독서/개념

무엇이 서술어 일까?(가장 중요)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 서술어인지 즉 무엇이 결론인지 아는 것

'결론은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함 즉 문장을 읽을 때 어디가 주제일지 생각하면서 읽고 그 결론에 밀줄 치면 되는 것

'그래도 수능틱하게 배경지식으로 몇 가지는 알아두자

'안긴 문장의 서술어- 중요하다

EX) 독일의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주의는

EX) PEOPLE SAY THAT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설명& 중요

'한정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구-중요하다

EX) 100도가 넘는 상황에서는

EX) IN THAT SITUATION

'한정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어는 내용일지 문제로 등장하기 쉬움

'문장 안에서의 예시- 중요도가 떨어짐

EX) 분노와 사랑, 고통과 기쁨 등 자신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표현

'문장 안에서의 예시는 밀줄 치지 말기!

'문장 안에서의 진술 재진술- 중요도가 떨어짐

'실험 등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느껴지면 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생각 생각하며 읽기

:문단의 첫 주어(KEYWORD)에 동그라미/ 결론에 밀줄(4가지는 참고, 스스로의 생각)/ 문단이 끝나면 연결해주기

<POINT 독해법= 문제가 만들어 지는 방식>

이 시험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9평 독서/개념

정의

- 기초적인 사실 진술
- 상관 관계의 활용(겁나 중요)
- $X=Y/Z$ 에서 Z가 올라가면 X가 떨어지겠군 확인

비교 대조

- 역의 오류/남- 시장경제 VS 북- 계획경제+시장경제/ 시장경제이면 남한이겠군(X)
- 범주의 오류/남- 시장경제 VS 북- 계획경제+시장경제/ 남한은 계획경제이겠군(X)
- 포함관계를 확인하는 문제.

과정원리

- 과학기술문제의 핵심
- 순서를 바꾼다
- 첫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오겠군

대응관계

- 유추를 활용
 - A를 본 따 B가 있다/ A의 3번째 성질을 B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군
- '이 4가지에 집중해서 세부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 4가지가 서술되는 방식을 한번 정리

'이후 이 4가지 서술방식이 느껴질 때마다 밑줄 치면 됨

'고민하지 말기& 정의라고 느끼면 그대로 밑줄&제대로 밑줄 찢는지 피드백은 오답을 통해서

'특히 비교와 대조에 집중 집중 집중!(A VS B 표시 해주기)

'요즘 트렌드는 상관관계 문제(정의를 복잡하게 제시되면 특히 집중해서 밑줄)

'겉쳐도 상관 없음& 그냥 세부 정보이니 밑줄 치면서 집중해서 읽기

이 시험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9평 독서/개념

2. 독해법+

- 이번 수능에서는 꼭 요것도 하자!
- 서론 WARM UP!
- 서론에서 시간을 15초만 더 쓰기
- 서론에서 결론 부분 연결하면서 완결성이 있는지 고민&오직 예측만 하기!
- 만약 서론에서 정의 비교대조 상관관계가 등장한다면 꼭 이해하고 넘어가기. 정보라도 정리!!!!

서론 WARM UP!

① 완결성만 고민하면 전체 구조는 끝

- 좋은 글의 핵심은 완결성
- 내가 무엇인가를 던졌으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글은 좋은 글
- 따라서 완결성에 집중하면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Q&A
- 문제 해결
- 개념어 설명
- 비교 대조 구문의 반복
- 서론에서 3가지를 제시 본론에서 3가지를 받음
- 문단이 끝났지만 완결성이 없다면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
- 어차피 결론 연결하면서 꼭 한번 더 읽음. 그때 완결성이 없다면 예측만 하기
- 신중! 완결성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글을 찾기란 쉽지 않음/ 끼워 맞추지 말기
- 특히 비교 대조 구문에서 조심하기. 비교 대조 되는 X&Y의 개념은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중요한 건 비교 대조 나왔다고 틀에 끼 맞춰 읽지 말라는 것

이 시험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9평 독서/개념

②서론에서 정의, 비교 대조 상관관계가 등장한다면 이해하고 가기!

-시간을 쓰라는 것

-비교 대조(6평 음악지문에서 고른음에서 단순음과 복합음으로 한번 더 구분)// 정의(수능 완성 태양풍지문)// 상관관계(육사 수온약층 지문)

-요런 지문에서는 어차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우선 이해 하고 넘어가기

EX) 음속- 압력과 온도/ 물속이 더 빠르다/ 수중 음속은 수압이 높을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빨라짐(STOP.여기 까지 서술어 연결하기 뒤로 가기. 물속이 공기 중에 비해 압력이나 온도가 다르구나. 음속은 압력과 온도에 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구나. 이후 문단 끝날 때까지 계속 연결)

수심이 깊을수록 수압이 올라감(수심이 올라가면 수압이 올라가고 이게 음속을 높이겠다 어찌되었든 압력 영향)

수심이 깊을수록 수온은 달라짐(수심이 올라가면 수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조건 음속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군. 어찌되었든 온도 영향)

- 만약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선 그 문장의 결론에 밀줄치고 문단속의 정보로 남겨두기& 연결해두기: TEXT로만 독해

3. 풀이 비급

'핵심은 내용 일치

-P→Q구조에서 P/Q로 꿈기

-나와 있다면 정답! 나와 있지 않다면 오답이다!

-만약 대우, 역, 이 등의 논리적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멈추고 내용 일치만!

-하지만 문학과는 분명하게 다름!

CF)문학 문제 풀이

함축적 언어로 의미를 물어서는 안됨

글의 개념이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 따라서 완전한 내용일치

이 시험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9평 독서/개념

'독서의 언어는 지시적 명시적 일상적 언어

-이와 관련해 딱 2가지만 정리하기

-1. 의미를 물을 수 있게 됨 특히 추론을 할 수 있게 됨

-EX) 장미는 A하다 → 어떤 식물은 A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군 → 국화도 A할 수 있겠군

- '이러할 수 있겠군'이라는 서술어와 함께 제시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참임. 문학처럼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참이 될 수 있음

-2. 또 중요한 건 문학과는 다르게 P&Q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P&Q'이 사용

-선지에 등장하는 용어들도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일반화와 예시를 통해 변화

-EX) 이력 현상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이력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어느 점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과냉각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EX) 선지: 이력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은 과냉각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선지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와 예시를 통해 개념의 표현을 약간 변화. 문제를 쉽게 풀고 싶다면 '이력 특성이 있는 물질'-'물'로 바꿔서 풀어버려!

'추가 문제 풀이 스킬

-1. 보기: 줄글은 어려움. 줄글을 글의 개념으로 혹은 몇 번째 문단으로 바꿔놓기

-2. ㄱ에 대한 이해: 그 문단의 결론 5초동안 연결하고 문제 풀기

-3. 보기+ 변수간 상관관계(28번): 미리 변수간 수식을 옆에 써두고 변수들을 변화& 답은 주로4번 아님 5번

-4. 비교 대조: 범주 바꾸기(A → B)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서성수 국어

오르비 교대점